

#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상호관세 15%→25%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

“韓 국회 합의이행 안해”…목재·의약품 등도 대거 포함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언급…쿠팡·디지털 규제 불만도

## 한미관세협상 주요일자

2025년

※ 현지시간 기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3월 12일 발효)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4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 발표  
3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부과 방침 발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시찰,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예정 적시  
7월 30일 구윤환 부총리 등 한국 합동단,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관세 협상을 험에서 타결.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등 양국 및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등의 내용  
이제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내용 협인. 후속 협의 미완으로 공동성명 미작성

연합뉴스

10월 29일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 경복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한미 정상, 관세 및 투자 관계 주요쟁점 합의  
11월 14일 한미 양국 합의 내용 ‘조인트 브리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확정. 이재명 대통령 직접 발표  
11월 25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  
12월 4일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 15%로 소폭 인하 내용(11월 1일자 소급 적용), 미국 연방 정부 관보 게재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 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 예고(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 언급)  
-1월 절차상 대미투자특별법(안) 속り 기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월 1주 전 회의 개최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의 추진.  
2월 중 법안 통과 전망



AFP

뉴욕시에 내린 눈 치우는 제설차량.

텍사스주에서는 셀메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숨졌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1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캔자스주에서는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눈 속에 파묻힌 것을 수색견이 찾아냈다.

항공편 8000편 이상 지연·결항…69만 가구 이상 정전

## 초강력 눈폭풍 이어지는 미국…최소 26명 사망

항공편 8000편 이상 지연·결항…69만 가구 이상 정전

미국 북동부·중부·남부 지역에 몰아닥친 초강력 눈 폭풍으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남부 아칸소주부터 북동부 뉴잉글랜드주까지 2100km에 걸쳐 3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눈 폭풍이 지나간 곳에는 한파가 찾아왔다.

뉴욕시에는 수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적설량이 20~38c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늘고 있어 현재까지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 당국은 지난 24부터 현재까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외에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매시주 세체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제설차에 치여 2명이 사망했고, 아칸소주와

연합뉴스

##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